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글·사진 | 허용선 | 건강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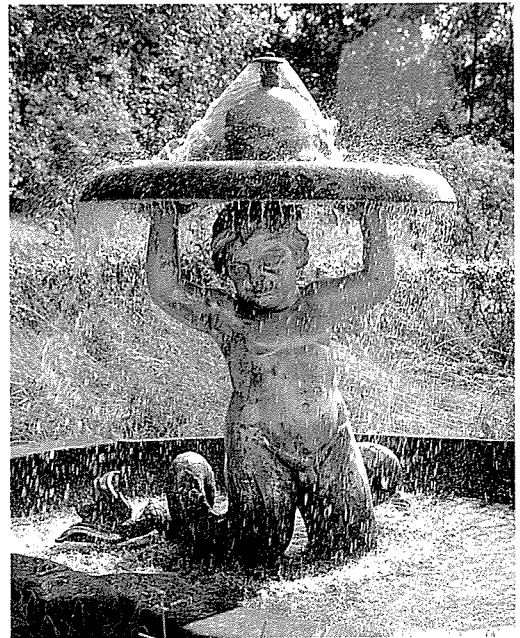


▲ 유서 깊은 성 이삭사원과
표트르 대제의 동상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수도였던 상트 페테르부르크(Sankt-Peterburg)는 구색 장엄한 도시로 많은 러시아인들이 평소 살기를 원하는 도시이다. 도시 곳곳에 그 채으로 덮인 거대한 공원이 있고 주택지에도 녹음으로 우거진 곳도 많다. 레바강이 도도히 흐르고 있어 러시아의 어느 도시보다도 수자원이 풍부하고 공기 역시 맑다.

러시아 제2의 도시인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예로부터 '북구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 러시아의 뛰어난 황제였던 표트르 대제가 유럽 강국보다 뒤떨어진 러시아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러시아의 새로운 수도로 정하면서 세상에 태어난 도시이다. 1703년 도시 건설을 위해 첫 삽을 뜰 당시에 이곳은 숲과 늪으로 이루어진 황량한 벌판이나 다름없었다. 당시 표트르 대제는 4만 명의 병사와 3만 명의 농부, 그리고 전쟁 포로 등을 동원하여 신도시 건설을 힘차게 추진했다. 귀족들은 신도시에 의무적으로 저택을 짓도록 했으며, 국내의 모든 석공을 이곳으로 불러들였다. 다른 지역에선 아예 석조 건축을 금지시켰다. 이렇게 하여 버려졌던 황무지 같은 곳에 아름다운 큰 도시 하나가 세워졌다. 바로크 양식과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건설된 저택과 성당 등이 운하와 가로수 길을 따라 세워진 도시의 모습은 보는 순간 감동을 금치 못하게 했다고 한다.

상트(聖)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 이름은 1914년 제1차



▲ 러시아 건축 예술의 보고인 표트르 대제 여름 궁전에 있는 황금 분수대

세계대전 당시 적국인 독일식 발음이라고 하여 페트로그라드로 변경됐고 그 후 공산주의 체제를 러시아에 성립시킨 레닌이 1924년에 죽자 그를 기념하기 위해 레닌그라드로 불렸다. 그러다 1990년대 들어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자 1991년부터 옛 이름인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다시 불리게 되었다. '유럽을 향해 열린 창'이었던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각국으로부터 새로운 문화를 많이 도입해 러시아로 하여금 진취적인 발전을 이루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혁신적인 사상이었던 사회주의 이론에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는 바람에 황제의 전제정치를 사라지게 하고 지구상에 최초로 공산국가를 탄생시키는 도시가 되기도 했다.

얼마 전 상트 페테르부르크 취재를 위해 이곳 국제공항에 도착한 때는 새벽 2시였다. 안내인은 물론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곳에 오니 마치 절해고도에 홀로 선 느낌이었다. 며칠 전 모스크바에서 예약해 둔 프레발티스카야 호텔로 향했다. 공항에서 무척 먼 거리에 있는 이 호텔을 향해 택시는 계속 달렸다. 거리는 가로등이 거의 켜 있지 않아 몹시 어두웠다. 음울해 보이는 시커먼 건물이 등성등성 보일 뿐 고요한 적막감에 쌓인 칠흑 같은 밤거리였다. 한때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러시아의 음침한 거리를 홀로 가노라니 두려운 느낌이 들기도 했다. 멀리서 조그만 불빛이 보였다. 그쪽으로 계속 다가가자 불빛 주변이 환하게 다가왔다. 프레발티스카야 호텔이었다. 긴 사막의 여정 끝에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기쁜 마음이 들었다. 이 호텔은 바실리에프스키섬 끝에 있고 페테르부르크에서 알아주는 고급 호텔이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100개가 넘는 섬과 네바강과 발틱해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수많은 운하를 이어주는 다리만도 365개에 달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연상되는 도시이다. 네바 강변을 따라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늘어서 있고, 드넓은 공원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우거져 있다. 대낮에 다시 본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간밤에 느꼈던 음울한 도시는 결코 아니었다. 백야현상으로 밤 11시에도 밝은 발틱해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인상적인 추억으로 남아 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예술과 문화의 도시로 미술관과 박물관이 시내에 100여 곳도 넘는다. 도스토예프스키, 톨



▲ 햇빛이 잘 내리비치는 날에는 네바 강변으로 시민들이 몰려나와 일광욕을 즐긴다



▲ 성 페테르부르크의 네프스키 대로. 시민들의 활기찬 삶의 모습이 느껴지는 곳이다

스토이, 고골리, 푸슈킨 같은 러시아 문학의 대가들, 차이코프스키와 루빈스타인과 같은 세계적인 음악가가 이곳에서 주옥같은 명작을 남겼다. 실로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예술의 산실이요, 고향과 같은 도시인 것이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다채로운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음을 자랑한다. 특히 에카테리나 여제와 니콜라이 1세가 수집한 예술 작품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러시아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프랑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의 뛰어난 명작들을 많이 전시하고 있다. 제정 러시아의 황제의 궁전이었으므로 에르미타주 박물관 내부는 호화롭게 꾸며져 있다. 반들반들한 대리석 기둥, 그림이 그려진 높다란 천장과 샹들리에, 곳곳에 배치된 대형 거울 등은 아름다운 예술품과 어우러져 한층 보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32km 정도 떨어진 표트르 대제의 여름 궁전은 러시아 건축과 정원 예술의 걸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다. 러시아 황제들은 무더운 여름철에 이곳에서 정사를 돌보았다. 궁전 내에는 하늘 높이 솟구치는 분수들이 많다. 표트르 대제는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보다 뛰어난 궁전을 만들고자 프랑스의 건축가인 레블롱을 초청하여 이 여름 궁전을 건설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내에 자리한 성 이삭사원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돔형의 성당이다.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알렉산드르 1세는 1818년 이 성당을 짓기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 성 이삭사원 뒤편에는 표트르 대제의 청동상이 우뚝 서 있다. 그는 이 도시를 건설한 러시아의 위대한 황제로 현재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다. 취재를 갔을 때 그의 동상 앞에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놓고 간 붉은 꽃이 놓여 있었다. 성 이삭사원은 러시아 혁명 후에는 박물관으로 바뀌어 사용되다가 민주화의 물결이 도도히 밀어닥치자 신부도 근무하고 정기적으로 예배도 보는 본연의 장소로 변하고 있다.

오늘날 상트 페테르부르크 당국과 시민들은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로 인한 환경오염, 쓰레기와 생활폐수에 따른 하천오염, 산업화에 따른 화학물질 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유럽 여러 나라와 교역하기 좋은 지정학적인 조건을 잘 활용하여 구 공산권 시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높은 생활수준을 이루고 있다. **72**



▲ 네바강과 에르미타주 박물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으로 많은 예술품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다